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2년 2분기(4·5·6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20대 대선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투쟁, 화물 노동자·대우조선하청지회 노동자 파업과 같이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일일 폐쇄되는 일이 있었던가 하면,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구상안이 발표돼 난개발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정치·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기 필요했던 시기였고,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낸 10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후보작 10편 가운데 **KBS 부산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강예슬·황현규 기자), **부산MBC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윤파란 기자), **부산MBC <2022 6·1 지방선거 기획보도>**(민성빈·박준오·송광모 기자)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KBS부산의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에 코로나19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모색했습니다.

**부산MBC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는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 변동 내역과 기부처를 상세히 취재해 지역민의 알권리와 지역권력 감시에 충실한 보도를 보여줬습니다.

**부산MBC <2022 6·1 지방선거 기획보도>**는 지방선거의 의미, 선거제도의 허점, 후보 공약과 발언 검증 등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기획보도 중 가장 유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7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2022 2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추천작 목록

번호	매체	보도	기자
1	KBS부산	북항재개발 문제점 관련 연속보도	이이슬
2	KBS부산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	강예슬 황현규
3	부산MBC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	윤파란
4	부산MBC	공공기여금 문제 관련 보도	송광모 윤파란
5	부산MBC	롯데기업의 22년간 꿈수와 이를 눈감아준 부산시 행정 지적 보도	김유나
6	부산MBC	2022 6·1 지방선거 기획보도	민성빈 박준오 송광모
7	부산MBC	생리대 빈곤은 인격살인이다	빅벙커
8	부산MBC	드론 실증 사업 고발	시사포커스IN
9	KNN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	최한솔
10	국제신문	장애어린이집 폐쇄, 부산지역 현황 살핀 보도	신심범

■ KBS부산\_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

부산 긴급복지 신청 10만 건의 흔적  
데이터로 그려낸 코로나19 불평등의 모습



KBS부산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 코로나 2년 빅데이터’를 6차례 보도했습니다. 2년 1개월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에, 코로나19가 남긴 불평등의 흔적을 데이터로 드러내 모두가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공론화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마지막으로 잡는 밧줄 같은 제도, 긴급복지 지원. KBS부산은 최근 3년간 부산의 긴급복지 10만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원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로 살펴 부산의 위기가구 지형이 변화했음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 같은 일시적, 한정적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등.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한탄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KBS부산이 선택한 건 데이터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이 남긴 가혹함의 흔적을 시각화하자 10만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깊어진 불평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고자 한 KBS부산의 위기가구 추적 보고서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관련 기사]

<최후의 사회안전망…긴급복지 10만 건 분석>(4/18, 황현규)

[https://www.youtube.com/watch?v=YAWJV\\_Gg2n0](https://www.youtube.com/watch?v=YAWJV_Gg2n0)

<달라진 급성 빈곤…'위기 가구' 급증한 곳은?>(4/18, 강예슬)

<https://www.youtube.com/watch?v=IXsGswXtk&t=1s>

<위기의 중장년…긴급생계비 70%가 40~64세>(4/19, 강예슬)

<https://www.youtube.com/watch?v=CHoC-HNvzkc>

<실직에 휴·폐업…코로나가 낳은 '신위기 가구'>(4/20, 황현규)

<https://www.youtube.com/watch?v=ksISu90loxQ&t=59s>

<긴급 복지 못 받는 사각지대…지원도 한계>(4/21, 강예슬)

<https://www.youtube.com/watch?v=WPbw8n7esac>

<"잠재된 위기"…빈곤의 늪에서 일상 회복은?>(4/22, 황현규)

<https://www.youtube.com/watch?v= bj7rxTAW0>

■ 부산MBC\_‘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

언론이 따져 묻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일이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 역할 빛난 부산MBC 보도



부산MBC는 4월 4일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고, 정치권력 감시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 검증을 통해 건축물 신고 누락을 지적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시민 약속을 검증함으로써 1년여에 걸친 보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집념이 빛을 발한 보도였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형준 시장의 재산 변동 내역과 기부처를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를 약속한 것과 달리, 임원에 자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가족재단에 기부했다고 알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약속 혹은 후보의 공약, 유권자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고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테두리 밖 약속이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영영 잊히거나, 시민과의 약속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보궐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정치인의 약속, 국정감사 발언,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나로 연결해 낸 제4부 권력, 부산MBC. 위의 보도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박형준 ‘미등기 건축물’ 후보자 재산 신고에도 누락〉(2021/3/23, 윤파란)

<https://www.youtube.com/watch?v=QAmjtrSGx6s>

〈박형준 시장 재산 2위…엘시티 그대로 소유〉(2022/3/31, 윤파란)

<https://www.youtube.com/watch?v=6aAHb7kmSuM>

〈‘사회 환원’ 약속…알고 보니 ‘가족 재단’ 기부〉(2022/4/4, 윤파란)

<https://www.youtube.com/watch?v=K9MDKVqlh2s>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초유의 상황에 한 표 가치 알리기부터 나선 부산MBC 선거 기획



부산MBC는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선거 기획보도를 이어왔습니다.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좀처럼 분위기가 모이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의 기획은 지방선거 기간 부산 유권자의 선거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시작은 ‘투표를 안 한다구요?’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권자의 한 표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등한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에 주목해 기초의원 무용론을 반박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4인 선거구제를 부각했습니다. 선거구 쪼개기 문제, 거대 양당 중심 선거 판세와 이로 인한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면한 선거뿐 아니라 4년 후를 기약하며 더 나은 선거제도를 위한 제언이 돋보이는 선거기획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는 광역단체장 후보 3인의 공약과 의혹을 검증해 유권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거방송을 보여줬습니다.

지방선거의 의미, 기초의원 선거 강조, 헛구호에 그친 개혁공천, 무투표당선 문제,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까지. 후보자 선거운동 동정보도가 빠진 자리에 유권자 중심 선거보도를 채워 넣은 부산MBC 지방선거 기획. 이를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기획 제목	날짜	기사 제목	기자
투표를 안한다 구요?	5/9	저조한 투표율 심각, 소중한 한표의 가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kPxWK0f1JU">https://www.youtube.com/watch?v=lkPxWK0f1JU</a>	민성빈 송광모
	5/10	임기 못 채운 단체장 11명, 198만 표 증발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_MEBGN2Grw">https://www.youtube.com/watch?v=E_MEBGN2Grw</a>	송광모
	5/11	부산시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는?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bl4-7n01S8&amp;t=60s">https://www.youtube.com/watch?v=tbl4-7n01S8&amp;t=60s</a>	민성빈
	5/12	기초의원 무용론? 오히려 더 잘 뽑아야!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Dy2lkCT_rA&amp;t=14s">https://www.youtube.com/watch?v=GDy2lkCT_rA&amp;t=14s</a>	민성빈 송광모
기초 의원 선거도 치열	5/13	부산 첫 4인 선거구 ‘기장군 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Q8ZUITA53xc">https://www.youtube.com/watch?v=Q8ZUITA53xc</a>	박준오
	5/14	쪼개기 혼란 속 기초의원 치열한 선거전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5BbtcWLMVmY">https://www.youtube.com/watch?v=5BbtcWLMVmY</a>	박준오
	5/20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 사라진 선택권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J7Vkdd3q6o">https://www.youtube.com/watch?v=jJ7Vkdd3q6o</a>	박준오
거대양당 공천 문제점	5/16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음주운전 무더기 공천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HMmnpE0mls">https://www.youtube.com/watch?v=THMmnpE0mls</a>	송광모
	5/17	여성·청년 후보 부족, 개혁공천 헛구호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Nlwnm9um0M">https://www.youtube.com/watch?v=CNlwnm9um0M</a>	민성빈
공약/ 후보, 검증과 팩트 체크	5/23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말 말 말, 팩트는?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EvAglRsfps">https://www.youtube.com/watch?v=BEvAglRsfps</a>	송광모
	5/24	원전이슈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답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yIxmNxdw92Y">https://www.youtube.com/watch?v=yIxmNxdw92Y</a>	송광모
	5/25	같은 듯 다른 2029년 신공항 개항론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GhU3-ihoDU">https://www.youtube.com/watch?v=hGhU3-ihoDU</a>	송광모
	5/30	‘지하차도 참사, 엘시티, 전과’ 해명은?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CKtZNPynjxl">https://www.youtube.com/watch?v=CKtZNPynjxl</a>	송광모

## ■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KBS부산 ‘북항재개발 문제점 관련 연속보도’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해양조망권 독점,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에게 되돌아 가야할 북항을 일부 경제권력이 독점하게 되는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또 북항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북항재개발 특별법’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도 적극 보도했습니다.

[대표 기사]

〈교통 거점 북항 '복합환승센터'...숙박시설 변질〉(4/6, 이이슬)

<https://www.youtube.com/watch?v=52XVIZpOo8w>

부산MBC ‘공공기여금 문제 관련 보도’는 송도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금 규모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일던 시기에 공공기여 관련 규정부터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행 지자체의 협상력과 의지에 따라 이익환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익극대화 와 난개발을 부추길 뿐 아니라, 이로인해 첨단산업 핵심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표 기사]

〈바닷가 영구 조망.. "수천억 벌고 '질کم' 내고"〉(4/21, 송광모)

<https://www.youtube.com/watch?v=k0uG454C0KU&t=19s>

부산MBC ‘롯데기업의 22년간 꼼수와 이를 눈감아준 부산시 행정 지적 보도’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13년간 ‘미등기’ 상태로 롯데가 이를 이용해 역대 등록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부산의 롯데백화점, 마트 등도 모두 서울법인이 추진해 매출금액과 세금이 모두 서울로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롯데 측의 업무협약 체결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있던 차에 임시 휴업의 원인과 롯데기업, 부산시 행정의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대표 기사]

〈"롯데는 향토기업인가요?"... '세 테크' 꼼수〉(6/7, 김유나)

[https://www.youtube.com/watch?v=uJbl79\\_oTMQ](https://www.youtube.com/watch?v=uJbl79_oTMQ)

부산MBC 빅벙커 ‘생리대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는 코로나19 빈곤상황에서조차 말할 수 없는, 예산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예산 편성을 점검하고 광주의 사례를 들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생리대의 공공재적 성격을 짚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편에서는 생리대 파동 이후 오히려 오른 프리미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가격관리와 함께 안전성 관리가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표 기사]

1부 6월 9일\_생리대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89EfDftBOrg&t=272s>

**부산MBC 시사포커스IN ‘드론 실증 사업 고발’**은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나로 부산·김해·양산산울주군 4개 지자체가 드론을 활용해 재해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서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으며 재해 현장 맞춤형 드론이 단순 조립한 드론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대 사업비 부정수급 등 문제점 보도를 통해 세금낭비의 전형적 사업이라 고발했습니다.

[대표 기사]

1부 6월 9일\_ 드론 실증 사업, 눈 먼 돈 어디로

<https://www.youtube.com/watch?v=wHuBLkbPX0s>

**KNN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인가?’**는 올해 유난히 많았던 산불에 주목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수십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집중점검했습니다. 부산·경남권 숲 가꾸기 사업 현장 취재를 통해 화재 예방 목적의 사업이 실제로는 화재 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산사태 위험, 탄소 저장 효과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목적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과정의 허점 등을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잇따른 산불, 장마철 산사태 위험이 큰 시기에 맞춘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대표 기사]

〈‘숲 가꾸기’, 오히려 산불 피해 키웠다〉(6/24, 최한솔)

<https://www.youtube.com/watch?v=UO5iupe4x1w>

**국제신문 ‘장애어린이집 폐쇄, 부산지역 현황 살핀 보도’**는 사상구 유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조금을 원장이 부정 수령해 시설 폐쇄 처분을 받게 될 상황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국제신문은 뉴스 분석 코너를 통해 부산 소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분석했습니다. 이보조금 유용 시설에 대한 사건에서 폐쇄에 따른 장애아동 교육권 침해 사항에 관심을 갖고 현황 파악과 함께 우려점을 전달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재난지원금 강화를 이유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 개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부산형 사회복지’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부산시 복지 정책 감시에 충실한 보도입니다.

[대표 기사]

〈강서·동·영도·서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0’〉(6/14, 8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13.99099003061>